



즉시 배포용: 2019년 10월 2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스테튼 아일랜드 지역의 더 높은 갑상선암 발생률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 발표**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연구에 따르면 갑상선 암의 과도한 진단이 갑상선암 발생률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

*갑상선 검진 모범 사례에 대하여 보건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규 훈련 및 교육 포럼 진행*

*지역 암 예방 기금 지원을 위해 최대 675,000 달러를 제공하는 새로운 보조금 기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스테튼 아일랜드 지역의 더 높은 갑상선암 발생률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뉴욕 보건부(State Department of Health)의 한 연구에 따르면, 특히 스테튼 아일랜드에서 갑상선암의 과다 진단이 높은 발병률을 초래한 중요한 요인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보건부(DOH)와 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포스(US Preventative Services Task Force)는 다른 암과는 달리, 갑상선암 검사 질병의 징후나 증상이없는 성인에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종종 치료의 해악이 이득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지사는 지역 의료 전문가 및 보건 서비스 제공자에게 갑상선암 검진을 위한 모범 사례에 대한 새로운 교육 및 교육 포럼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뉴욕주 전역의 여러 지역사회에서 지역 암 예방 및 위험 감소 개입을 지원하는 보건부(DOH) 이니셔티브인 지역사회 암 예방 실천 지원금(Community Cancer Prevention in Action Award)에 675,000달러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적극적으로 다수의 암 조기 검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 갑상선암의 조기 검진은 득보다 실이 많은 불필요한 치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암 검진에 대한 모범 사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포괄적인 노력을 통해, 스테튼 아일랜드와 주 전역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환자를 과도한 진단의 잠재적 위험을 피하고 뉴욕 주민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 보건부 (New York State Health)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방암, 경부암, 대장암과 같은 많은 암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암의 경우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검진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이러한 경우 중 하나입니다. 검사를 통해 종종 임상적 이익이 없는 진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갑상선암 검사의 남용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치료와 관련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갑상선 검사는 갑상선수질암의 가족력 같은 요인으로 인해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적절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수술 또는 진단 영상이나 다른 상태에 대한 테스트 중에 부수적으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선별 검사는 종종 목 초음파를 포함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바늘 생검과 수술, 방사선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암 치료의 해약에는 평생동안 계속해야 하는 갑상선 호르몬 대체 요법, 대화 및 호흡과 관련된 신경에 대한 외과적 손상, 방사선 치료에 대한 노출 가능성 등이 포함됩니다. 많은 경우, 득보다 실이 큼니다.

또한 주지사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 주 전역에서 암 검진 프로그램의 모범 사례를 확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주정부는 그레이터 뉴욕 병원 협회(Greater New York Hospital Association), 스테이튼 아일랜드 PPS(Staten Island PPS), 뉴욕주 의학 협회(Medical Society of the State of New York), 스테이튼 아일랜드 대학 병원(Staten Island University Hospital), 리치몬드 대학 의료 센터(Richmond University Medical Center)와 협력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교육 및 정보 포럼을 개최합니다.

보건부 연구자들이 스테이튼 아일랜드 지역의 해당 지역을 조사한 이유는 2011-2015 데이터를 바탕으로 뉴욕시에서 모든 암의 총 수치가 이 행정자치구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암을 유형별로 평가하자, 갑상선암은 뉴욕주의 다른 지역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난 유일한 암이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암은 뉴욕주 암 레지스트리(New York State Cancer Registry)의 정보를 활용하여 더 자세히 검토받았습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관계자와 연구 결과에 대해 토론하고 질의 응답하는 회의가 10월 29일 오후 7시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개최됩니다:

스테이튼 아일랜드 뉴욕 시립 대학교(CUNY College of Staten Island), 윌리엄슨 극장(Williamson Theater)  
뉴욕주 스테이튼아일랜드 빅토리 블라바드 2800, 10314

연구 대상인 스테이튼 아일랜드(리치몬드 카운티) 외에도 센테리치, 파밍빌, 셸덴(서퍼 카운티), 이스트 버팔로/웨스턴 치크토와가(이리 카운티), 워렌 카운티에서 높은 암 발생률에 대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목표는 주 특정 지역의 암 발생률 증가에 기여하는 요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주 전역의 암 예방 및 검진 노력을 더 잘 알리고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잠재적인 동향을 조사하면 보건부에서 어떤 암 예방 중재를 추진해야 하는지, 어떤 진단 및 치료 서비스가 환자와 자원을 연결할 때 가장 도움이 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뉴욕에서 진단받거나 치료되는 모든 암 사례는 법률에 의해 해당 보건 서비스 제공자가 뉴욕주 암 레지스트리(New York State Cancer Registry)에 보고합니다. 뉴욕주 암 레지스트리는 1940년에 미국 최초의 암 레지스트리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서 우수한 레지스트리(Registry of Excellence)로 지정되고, 레지스트리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인정받아 북미 센트럴 암 레지스트리 협회(North American Association of Central Cancer Registries)의 골드 인증(Gold Certification)을 받는 등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지역 암 연구는 암 레지스트리에 보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다른 출처의 데이터로 보강되었습니다.

지역의 인구 통계 및 사회 경제적 지위, 흡연 등의 행동 및 생활 방식 요인, 그리고 각 지역의 직업 및 산업 역사가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보건부는 환경 보호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와 협의하여 환경 요인에 대한 데이터 출처를 평가했으며 연구 분야에서 비정상적인 환경 노출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자치구의 **James Oddo** 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의 이득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검진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보로 홀(Borough Hall)에서 건강 검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최신 연구를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NYS Department of Health)의 암 연구 결과에 따라, 우리는 직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후 갑상선암 검사를 받아야 할 응급 요원(First Responder)을 먼저 대상으로 지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로 홀(Borough Hall)의 갑상선 검사는 방사선이 없는 초음파를 통해 실시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각자는 담당의와 함께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검진의 적절한 시점과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Charles D.Fall**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지역 암 예방 및 위험 감소 개입을 지원하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이니셔티브인 지역 커뮤니티 암 지역사회 암 예방 실천 지원금(Community Cancer Prevention in Action Award)에 자금을 지원해 준 Andrew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리치몬드 대학의 센터(Richmond University Medical Center), 스테이튼 아일랜드 대학 병원(Staten Island University Hospital), 뉴욕 의학 협회(Medical Society of New York) 및 그레이터 뉴욕 병원 협회(Greater New York Hospital Association)와 제휴를 통해, 문제 상황을 모든 뉴욕 주의 생명을 구하는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승리를 논의 할 때 예방,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합니다."

**Michael Reilly**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이 암 연구를 시작해주신 **Cuomo** 주지사와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 감사드립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도시 및 주의 다른 지역의 암과 비교했을 때 우리 지역사회에서 암의 비율이 놀랄만큼 높았습니다. 이제 스테튼 아일랜드 주민 치료 및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선출직 의원으로서 의회에서 최선을 다해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